

연예뉴스 스테이션

장동민, 한부모 가정 어린이 조종·성희롱 논란
지난해 여성 혐오 발언 등으로 논란을 빚으며 방송 가 되출 위기에 몰렸던 개그맨 장동민이 한부모 가정의 어린이를 조종하고 성희롱을 연상케 하는 내용의 개그로 다시 비난받고 있다. 장동민은 3일 방송한 케이블채널 tvN '코미디 빅리그'의 코너 '충청도의 힘'에서 어린이 역으로 출연해 "재네 아바지가 양육비 보냈나보다" "부러워서 그라, 얼마나 좋나. 선물을 양쪽에서 받았어. 재테크여, 재테크"라는 대사를 내뱉었다. 또 "(『또봇』 장난감을 사기 위해) 할머니 앞에서 고추를 까겠다"는 등 성희롱을 떠올리게 하는 몸짓 등을 드러냈다. 이 같은 사실이 6일 뒤늦게 논란을 모으면서 많은 시청자와 누리꾼이 비난을 쏟아냈다. 이에 제작진은 시청자에게 사과하며 "재방송과 VOD 등에서는 해당 장면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정 성매매’ 가수 A, 벌금 200만원
해외에서 재력가와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 가수 A가 벌금형을 받았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하태한 판사)은 '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는 연예관계자 강모씨의 소개로 지난해 4월 미국에서 재미교포 사업가 B씨를 만나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와 함께 기소된 걸그룹 출신의 연기자 C씨 등 3명도 모두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들에게 성매매를 주선한 혐의를 받은 강씨 등 4명은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김수현, 모교 중앙대에 장학금
한류스타 김수현(사진)의 홍콩 팬클럽이 김수현의 모교인 중앙대에 장학금을 전달했다. 6일 중앙대 측에 따르면 김수현의 홍콩 팬클럽 회원들은 서울 동송동 중앙대 공연영상예술원을 방문해 소정의 장학금을 연극학과에 전달했다. 김수현은 2009년 입학해 현재 재학 중이다. 팬클럽 회장은 "김수현의 모교에 장학금을 전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학생들이 김수현처럼 훌륭한 배우로 성장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강예원 주연 ‘날 보러와요’ 중국서 개봉
강예원(사진)이 주연한 영화 '날 보러와요'가 중국에서 개봉된다. 제작사 OAL은 6일 "베이징 영화 드라마문화전과 유한회사 치천대지와 손잡고 하반기에 중국 개봉과 리메이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치천대지는 판빙빙이 출연한 중국영화 '로스트 인 타이완'과 국내에서 개봉한 '레전드 오브 레빗: 불의 전설'을 공동으로 제작했다. '날 보러와요'는 이유도 모든 채 정신병원에 감금된 여자와 시스프로그래밍 PD의 이야기다.

수지, 악성루머 유포 누리꾼 38명 고소
걸그룹 미쓰에이의 수지(사진)가 악성루머를 유포한 누리꾼들을 고소했다.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6일 "수지에게 악플을 일삼고 루머를 유포한 38명의 누리꾼 ID를 발견해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에 배당돼 강남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소속사 측은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어떠한 선처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책 랭킹		
3월 23일~3월 29일, 자료:교보문고		
순위	제목	작가
1	완벽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사랑 해민	
2	미움받을 용기	기시미 아치로
3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지식	채사장
4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윤동주
5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히가시노 게이고
6	사피엔스	유발 하라리
7	미라클모닝	할 엘로드
8	보통의 존재	이석원
9	라플라스의 마녀	히가시노 게이고
10	오리지널스	애덤 그랜트

편집 | 고창일 기자 ico@donga.com

‘태양의 후예’ 스포일러 주의보

결말 공개 우려도

SNS에 미방영 영상·사진 유출 논란
중국 출처 의심도...과도한 팬심 눈살

KBS 2TV 수목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향한 해외의 높은 관심이 엇나가게 표현돼 혹여 그 열기에 찬물을 끼얹는 건 아닌지 우려의 시선이 제기된다. 2월24일 첫 방송 후 현재까지 무탈하게 방송해온 '태양의 후예'가 종영을 2주 남겨두고 스포일러로 몸살을 앓고 있다. 5일 밤 '태양의 후예' 국내 팬들 사이에서는 한바탕 소동이 일었다. 이

날 일부 인스타그램 사용자가 드라마 관련 영상과 이를 캡처한 사진을 게재하면서 논란이 벌어졌다. 6일 오후 현재까지 드라마와 관련한 다양한 내용이 SNS를 통해 매일 유통되고 있지만 이번 게시물은 방송에 공개되지 않은 내용이라 많은 팬들의 기대를 반감시키고 있다.

'태양의 후예'는 주중드라마 중 '해를 품은 달' 이후 4년 만에 시청률 30%를 돌파하며 주목을 받고 있다. 3월31일 방송한 12회까지 7회를 제외하고 매회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해 다음 회 내용에 대한 시청자의 높은 기대치를 증명한다. 시청자는 수·목요일 방송 종료 후 공개되는

30초 분량의 예고편을 통해 다음 회차에 대한 상상으로 일주일을 기다린다. 하지만 일부 과도한 '팬심'과 일부 시청자로 인해 그 즐거움을 박탈당하고 말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100% 사전제작으로 이미 촬영을 완료한 상태여서 이번 일부 영상과 사진을 통해 결말이 공개되지 않을까 하는 제작진의 우려도 크다. 제작사 NEW 측은 국내 팬들을 통해 스포일러가 출현 상황을 인지하고 경로 파악에 나서며 게시물 삭제 조치를 취했다.

일부에서는 게시물의 출처가 중국 쪽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기도 하다. 이에 대해 제작사의 한 관계자는 6일

드 파워를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그만큼 보유 연예인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가 돌아가기 힘들다는 맹점을 갖고 있다.

공민지는 소속팀 투애니원이 2014년 6월 박복의 마약류 밀수 논란으로 활동을 중단한 이후 지금까지 2년간 아무런 활동을 하지 못했다. 박지윤도 2014년 2월 '비프'로 활동한 후 가수로서 2년간 공백 상태였다. 이다해는 2014년 FNC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후 출연작은 MBC 드라마 '호텔킹'과 한중합작 드라마 '최고의 커피' 두 편에 불과하다.

이들이 공백기를 보내는 사이 공민지 소속사에서는 신인 남성그룹 위너와 아이콘이 집중적으로 활동했다. 박지윤 소속사에서는 에디킴의 활동이 많았고, 이다해 소속사에서는 설현의 활약이 유난히 돋보였다.

몸집이 큰 대형 기획사 입장에서 사업성을 고려해야 하고, 그렇다보니 수익성을 보장할 수 없는 모험보다는 '되는 팀'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또 신인급이 성공할 기회가 보이면 기획사로선 밀어붙여야 한다. 이처럼 특정 연예인에만 관심이 집중되는 이번에서 '방치'되는 팀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서운함과 불만은 누적되게 마련이다.

과거 빅마마가 YG를 떠나 당시 소형 기획사이던 테일런스미디어와 계약하면서 "우리에게 집중해줄 수 있는 곳에서 노래하고 싶었다"고 말했던 것이 이런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순서에 지쳐 결국 '활동'을 위해 소속사를 떠나게 되고, 자신에게 집중해줄 수 있는 기획사와 손을 잡거나 1인 기획사로 홀로서기를 하게 되는 셈이다.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엽기적인 그녀2’ 원조 K무비가 돌아왔다

내달 5일 개봉 앞두고 제작보고회 차태현 "15년 전 전우 개성 그대로" 빅토리아 "1편의 인기 부담되기도"

'엽기적인 그녀'가 15년 만에 돌아온다. 2000년대 초반 중국과 일본에서 시작된 한류의 기폭제가 된, 원조 'K무비'로 통하는 '엽기적인 그녀'는 후속편을 내놓으면서 영화의 흥행 사정권을 '범 아시아'라고 선언했다.

차태현과 빅토리아 주연의 영화 '엽기적인 그녀2'(감독 조근석·제작 신씨네)가 5월5일 개봉을 한 달여 앞둔 6일 제작보고회를 열고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이날 22일 중국에서 7000여개 스크린을 통해 먼저 공개되는 영화는 국내에 이어 일본에서도 대규모 개봉할 예정이다. 한·중·일 3국을 동시에 겨냥할 수 있는 배경은 앞서 경쟁력을 인정받은 킬러 콘텐츠를 향한 아시아의 관심이 집중된 결과다.

'엽기적인 그녀2'는 2001년 개봉한 차태현·전지현 주연작의 후속편이다. 제작진은 물론 주인공 겸우 역의

차태현까지 그대로 참여해 1편의 분위기를 개성을 잇는 동시에 새로운 얼굴도 적극적으로 기용했다.

영화는 1편에서 전지현을 떠나보낸 차태현이 '그 이상의 매력'을 가진 새로운 '그녀' 빅토리아를 만나 겪는 파란만장 신희일기를 그린다. 여기에 최근 한국영화가 가장 선호하는 배우 배성우와 일본 인기 여배우 후지이 미나가 합류해 이야기에 개성을 더하고 규모를 키웠다.

차태현은 1편처럼 2편의 성공에도 자신감을 드러냈다. "15년 전과 비교해 전우의 개성은 변함없다"고 밝힌 그는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흔한 보통남자"라고 했다. 그러면서 "1편을 기억하는 관객이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화의 상징으로 통하는 여주인공을 맡은 빅토리아는 중국인으로 아이돌 그룹 에프엑스의 멤버이기도 하다. 아시아를 무대로 활동하는 아이돌 스타인 그는 이번 영화에서 더욱 차태현·전지현 주연작의 후속편이다. 제작진은 물론 주인공 겸우 역의

차태현은 그런 빅토리아를 두고 "섹시하면서 발랄하고 때로는 엉뚱한 그녀"라고 소개했다. 물론 1편의 성공은 빅토리아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겼다. "1편이 워낙 유명해마다 중국에서도 인기가 많아 부담스러웠다"는 그는 "극중 중국인이라는 설정, 제작진과 차태현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자신있게 임했다"고 밝혔다.

연출은 '그해 여름' 등을 만든 조근석 감독이 맡았다. 조 감독은 "소극적으로는 1편의 명성에 흠이 나지 않길 바란다"면서도 "목표를 크게 잡으면 한국과 중국을 넘어 아시아에서 사랑받는 영화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엽기적인 그녀' 1편은 국내 개봉 당시 관객 488만명(서울 관객 기준) 동원에 성공했고 동시에 중국과 일본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영화다. 할리우드 리메이크를 통해 북미에서도 흥행한 히트작이다. 한류 열기를 본격적으로 몰고온 원조 'K무비', 톱스타 전지현의 대표작, 여전히 패러디하는 킬러 콘텐츠로 15년간 인정받아왔다. 이해리 기자 goh1024@donga.com

영화·드라마 장벽 허무는 ‘중국화’

‘엽기적인 그녀’ ‘치즈인더트랩’ 각각 드라마·영화화로 中 공략

경쟁력을 증명한 한국의 콘텐츠가 장르의 벽을 넘나들며 다양한 방식으로 제작되고 있다. 최대 콘텐츠 수요 시장으로 떠오른 중국을 염두에 둔 행보다.

영화 '엽기적인 그녀'가 드라마로 만들어진다. 2001년 국내는 물론 중국에서도 히트한 영화가 15년 만에 TV 드라마로 시청자를 찾는다. 연기자 주원이 주연을 맡는 드라마는 원작 영화의 주요 구성과 인물 설정을 그대로 따른다. 다만 배경을 조선시대

로 옮겨 사극으로 제작된다. 또 3월 초 막을 내린 케이블채널 tvN 드라마 '치즈인더트랩' 역시 영화화를 추진하고 있다. 인기 웹툰을 원작으로 그 무대를 영화로 바꾸려는 시도다.

드라마 '엽기적인 그녀'와 영화 '치즈인더트랩'의 제작이 추진되는 배경의 중심에 중국이 있다. 한국에서 검증된 콘텐츠를 선택해 다른 매체로 완성해 중국 시장에 내놓겠다는 전략이다.

더욱이 이들 두 작품이 각각 드라마 및 영화화를 시도하는 이유 가운데 앞서 중국과 나눈 '교감'도 빼놓을 수 없다.

실제로 '엽기적인 그녀' 제작진은 드라마 방송 직전 모든 분량을 완성하는 사전제작 방식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중·일 동시 방송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동제작사 심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공개 오디션을 통해 여주인공을 선발하고 7월부터 촬영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치즈인더트랩'의 영화화 역시 현재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가 한창이다. 확정되지 않았지만 한때 드라마의 주인공인 김고은과 서강준, 이성경 등 주요 인물이 그대로 참여하는 방식까지 검토됐을 만큼 다양한 시도를 준비하고 있다. 방송 관계자는 "서강준 등 드라마 주인공들이 중국에서 한류스타로 부상한 점도 영화 추진의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이해리 기자